

아시아 공동체론 에세이

- 21c 아시아의 미래에 대하여 -

행정학과 김솔아

이번 학기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들으며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 사실, 처음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마음먹었을 땐 장학금이 큰 유인체계가 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작년 2학기에 수강했던 교수님의 소개로 아시아 공동체론을 알게 되었고,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더불어 수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다. 고민 없이 이번 학기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마음먹었고 한 학기동안 장학금보다 더 큰 것을 얻어가는 기분이었다.

수업은 매주 다른 교수님들 혹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오셔서 매주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강의의 본질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에 있었다. 동아시아의 문화, 경제, 정치적 이야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과 앞으로의 협력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강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예로부터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다. 유교와 한자에 그 공통의 뿌리가 있고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점이 많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통점 안에 각 나라마다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차이점이 동아시아의 이해와 협력에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하나의 예로 유교를 수용하는 방식과 시기에 관해서도 한국, 중국, 일본의 세 국가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고, 이것이 국가의 발전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고 그 갈등과 갈등으로 인한 사건의 잔해들이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앞으로의 협력과 미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경제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에 대한 과거와 현재, 앞으로를 위한 한중일 경제 협력의 모색이 그 내용이다. 사실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 전반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한 강의에서 가장 흥미를 느꼈고,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평소 시사나 경제뉴스에 관해 관심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이 분야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고, 특히 요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TPP나 RCEP, 혹은 일대일로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내막도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여러 분야의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기도 하다. 식민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매우 황폐해졌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

라가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일본의 청구권 자금이었다고 한다. 이는 아시아 공동체론 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에 일본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물론 이왕희 교수님의 말씀처럼 일본의 도움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청구권 자금이 핵심적인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고 아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 한일관계가 식민시대의 잔해들과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역사적 문제. 혹은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로 단절되다시피 된 상황이고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이유들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과 점점 나아지고 있는 일본 경제, 선진국에 발을 들이고 있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점차 더 성장하고 있다. 작게 봤을 땐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혹은 일본이 다시 경제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부터 시작해 가장 핵심적으로 21c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동아시아 협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존재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고, 아시아 역시 서구에 뒤지지 않을 경쟁력과 미래를 갖춰 나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위기를 느껴 뒤늦게 미 주도 협력인 TPP에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를 통해 21c에 세계를 주도 할 아시아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문과 동아시아 정체성 확립,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미래의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무지했던 상태로 시작했지만 이 수업 이후엔 조금이나마 아시아의 문화, 경제, 정치적 측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폭넓고 깊은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통역 없이 영어로만 이루어졌던 강의였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강의인데 영어로 이루어져 조금 알아듣기 힘들었다. 통역이 있었다면 북한에 대해 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한 학기에 걸쳐 이루어진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은 정말 알찬 강의였고 국제 학술제 역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